

하이브리드 교수 모델을 이용한 수업 효과 분석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Utilizing Hybrid Model

봉원영*, 정구철**

삼육대학교 신학과*,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Won Young Bong(bong10@syu.ac.kr)*,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요약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수업 구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성교양과목 중의 하나인 '21세기 리더십' 과목을 선정하고, 이를 동일한 과목으로 2개 반을 개설하여 격주형 모형과 혼합형 모형으로 수행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과목을 수강했던 6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리더십 지식은 격주형과 혼합형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총괄평가인 기말고사 성적은 혼합형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조건적인 자기수용의 경우, 혼합형에서만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셋째, 리더십 생활기술의 증진은 혼합형에서만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리더십 과목의 경우,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학습효과도 함께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혼합형 하이브리드 모형을 채택하되, 학생들이 참여와 실습을 통해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보다는 오프라인 강의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을 결론짓고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하이브리드 모델 | 리더십 | 무조건적 자기수용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pen two classes with the name of 21st Leadership, run with two different hybrid teaching styles which are hybrid LZ type and hybrid lz type, and compare them with each other in order to analyze their effectiveness of hybrid model of the subje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4 students who took these classes,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analyzed through SPSS 21.0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evelopment in terms of the knowledge of leadership in both LZ and lz model. but the result of final exam in the group lz was shown only significant development. Second, in the case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there was significant development only in the group lz. Third, the development of leadership skills was shown only in the group lz.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concluded that the lz is more suitable for the subject of 21st Leadership because this model can provide much more opportunities to develop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than LZ model. In addition,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 keyword : Hybrid Model | Leadership |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현대의 가치는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의 하나가 바로 ‘융합’과 ‘조합’을 골자로 하는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다[1]. 그런데 이제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가 되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융합화를 시도할 정도로 본격적인 융합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교육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세계의 대학은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 구조를 운영하고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인성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학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단순히 가르치는 조직에서 학생과 교수가 함께 어우러진 학습공동체로,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정형화된 학습형태에서 현장중심의 맞춤형 학습으로, 혼자만의 학습방식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으로, 선형적·순차적 시간개념에서 다차원적·자율적 개념으로, 면대면 위주의 강의실 공간에서 능동적인 학습자의 수요에 의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2].

앞으로 미래의 대학은 학생 스스로가 대학을 선택하고 자신의 원하는 수업 콘텐츠와 수업방식을 활용하여 커리큘럼을 조정하므로 유동성 있는 학업운영과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의 우수대학들의 사례들은 미래의 대학이 면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실을 벗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지식과 학생 경험을 제공하며, 4년 정도의 일정 기간을 넘어선 평생 학습 기관으로 변모될 것임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있다[3].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hybrid model)인데 최근 선진대학들과 연계하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 개방형 온라인 강좌)의 플랫폼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란, 국내에서는 블렌디드 이러닝(blended e-Learning)이란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

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이 둘이 적절하고 조화 있게 운영되는 교육방식을 의미한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온라인 강의가 강의실 수업에 비해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의 기회와 시공간적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로 온라인 교육방식은 대학가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4]. 또한 정보통신 등의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일상의 상당한 부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 가능하게 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이 미디어의 사용자들을 정보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게 한 것도 이러한 교육방식의 개발을 촉진하였다[5].

그러나 온라인 교육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대면 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상 등의 매체를 이용해야 하는 교육적 특성상 그것에 대한 운용의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모든 강의에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또 다른 한계가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데 따른 어려움 등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도 면대면 강의 방식이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면서 교수자의 역할이 재조정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처럼 오프라인 형식의 면대면 강의 방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융합·조합한 하이브리드 교육모델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가장 극대화된 효과성을 증명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설계와 검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과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서울에 소재한 기독교대학교의 인성교양영역에 개설된 과목인 《21세기 리더십》을 격주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격주형 강의(type1)와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매주 절반씩 섞어서 병행하는 혼합형 강의(type2)를 수행한 후에 그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고 적절한 하이브리드 교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변수로는 인지적 영역에서 리더십 지식을 측정하고, 정의적 영역에서 리더의 무조건적 자기수용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기술 및 태도영역에서는 리더십생활기술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격주형과 혼합형 하이브리드 강의는 리더십 지식을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격주형과 혼합형 하이브리드 강의는 리더십 생활기술을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격주형과 혼합형 하이브리드 강의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하이브리드 교육

전통적 교육방식인 면대면 강의를 통한 교육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면서 이러닝(e-Learning) 형태로 진화되었는데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편리성, 접근성, 비용절감 효과성 등에서 큰 장점으로 부각되어 면대면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학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핍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두 환경을 혼합한(all-line) 블렌디드 이러닝(blended e-Learning)이다 [6]. 학자들 사이에는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환경만을 결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학습활동, 학습매체, 학습경험, 상호작용 방식 등의 다양한 학습요소들을 결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설계한 모델을 하이브리드 모델(hybrid model)로 정의하여, 이것을 블렌디드 이러닝에서 더 확대, 혹은 진화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7].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다양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교수-학습 모델로서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사이버공간을 통한 이러닝 교육방식을 전

통적 강의실 학습과 결합하여 다양한 교수법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보다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동시적-비동시적 상호작용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8]. 그러나 하이브리드 교육의 학업성취도 면에서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방식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혀낸 연구도 있었다 [9]. 이러한 사실은 보다 효과적인 하이브리드 교육효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교육방식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서 이 방식에 맞는 적합한 교과목의 선택과 콘텐츠, 수업전략, 교수자 및 학습자 등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교수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10][11].

하이브리드 모델의 교수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박성익 등(2007)은 온라인 학습에서는 주의집중, 학습전략, 학습자간 상호작용 등의 원인이 되는 학습자 관련요인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오프라인 학습에서는 교수자의 학문의 열정, 내용 전문성, 학습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과정 통제 등의 교수자 관련 요인을 교수설계의 주요 요인들로 꼽았다[12]. 또한 하이브리드 교육이 기본적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교수모델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경험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요인도 필요하다[13].

2. 하이브리드 교수모형

교육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가장 적절한 교수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방법을 어떻게 결합하여 어떠한 과정으로 학습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 연구와 적용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2개꼴로 새로운 강의가 개설되면서, 200개 이상의 대학교와 1,300명 이상의 교·강사가 참여하고 1천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MOOC의 경우, 그 강좌학과의 구성이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인문과학이 20%, 컴퓨터과학과 프로그래밍이 16%, 경영학이 15%

를 차지해 이 세 분야가 모두 51%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학과목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14]. 이것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대학에서 하이브리드 교육을 적용한 수업사례들을 살펴보면, 영어나 중국어 등의 언어 영역 과목이나 교양과목의 차원을 넘어 전공과목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시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어느 특정 과목에 대해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기독교 대학에서의 종교과목을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한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다만 이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한 기독교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긍정적 가능성을 확인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3].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적용했던 하이브리드 교수모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하이브리드 교수모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실제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수업 차시를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로 구분하여 격주로 운영되는 ‘격주형’ 수업(type 1)이다. 둘째는, 한 차시에 해당하는 수업 시간을 온라

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로 적절히 분할하여 매주 일정한 비율의 시간으로 진행되는 ‘혼합형’ 수업(type 2)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의 강의를 별도로 존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강의를 나란히 병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다리형’(type 3)이 있다[15][16]. 우종정 등(2008)은 앞서 설명된 type 1 형태의 수업방식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서로 독립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직형 혼합방식으로 분류했고, 두 형태의 강좌가 한 시수 안에서 서로 혼합되는 type 2의 형태를 수평형으로 각각 분류하였다[9]. 온·오프라인의 두 수업이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사다리형(type 3)의 경우, 두 수업 라인 중 하나가 주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형태의 수업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복적 학습을 필요로 하는 언어영역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인시험이 뒤따르는 영역의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15]. 본 연구에서 ‘사다리형’을 사용하지 않고 격주형과 혼합형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대학 수업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온-오프라인 수업이 교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나 차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다리형의 경우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H자형태로 나란히 진행되기 때문에 전

표 1. 대학에서의 하이브리드 교육 유형과 적용 사례

구분		하이브리드 교육유형에 대한 이해		
		TYPE 1	TYPE 2	TYPE 3
정의	정의	수업 차시를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로 구분하여 격주로 운영되는 ‘격주형’ 수업	한 차시에 해당하는 수업 시간을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로 분할하여 매주 비슷한 비율의 시간으로 진행되는 ‘혼합형’ 수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의 강의를 별도로 존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강의를 병행적으로 운영되는 ‘병렬형’ 수업
연구자	Garrison & Kanuka(2004)	강한 블렌디드 러닝(Strong Blended Learning) 참고로, 약한 블렌디드 러닝(Weak Blended Learning)은 교수자의 교수법의 변화 없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느 한쪽이 우세한 가운데 추가적이거나 보충적인 활동을 통하여 한 쪽을 강화하는 유형으로, 예를 들어 오프라인 강의를 주된 강좌에서 예습 혹은 복습을 온라인으로 하는 형태의 방식을 말한다.		
	Wilson(2008)	수직형	수평형	
	우종정 외(2009)	반작용적 블렌딩 모형 (Reactive blending model)	순항적 블렌딩 모형 (Proactive blending model)	
	최병수 외(2013)	지그재그형(Zigzag Model)		사다리형(Ladder Model)
		Large Z형	small z형	H형
연구사례 및 적용과목		이현주(2012): 영어 성치경(2011): 한문 한지영 외(2010): 보건교육학 임정훈(2007): 교육심리학	김준호 외(2010): 관리회계 우종정 외(2009): 교육심리, 컴퓨터 구조	최병수 외(2013): 엑셀실무 최윤경(2011): 기초중국어

체적인 수업 시수가 증가하여 학생들이 학점에 비해 과도한 시수를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15]. 우리나라 대학에서 활용된 하이브리드 교수모형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17-23].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1개 대학교에서 동일한 과목명의 교양강좌 2개 반을 개설하여 이 과목에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수업의 운영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지나 수강이 확정된 학생 수는 69명이었다. 그 중 4회 이상 결석을 하거나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을 제외하고 최종 64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4.4세(SD=1.7)였으며, 남학생이 22명(34.4%), 여학생이 42명(65.6%)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31명(48.4%), 자연공학계열이 18명(28.1%), 예체능계열이 15명(23.4%)이었고, 학년별로는 3학년이 40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4학년이 16명(25.0%), 2학년이 8명(12.5%)이었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1명(32.8%)이었고, 종교가 없는 학생은 43명(67.2%)이었다.

2. 연구 절차

개강 후 《21세기 리더십》 과목의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본 수업의 목표와 하이브리드 수업 운영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그리고 본 수업과 동일한 과목으로 개설된 다른 강좌의 운영형태도 안내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강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수업의 목표에 동의할 수 없거나 수업 운영 형태에 대해 부정적인 학생들에게는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수강 신청된 학과목의 변경이 개강 첫 주까지 가능하므로, 2주차에 수강이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지식을 비롯한 주요 연구변수들의 사전검사를 수행한 후 수업을 시작하였다. 첫 6주간 두 유형의 하이브리드 수업을 각각 진행한 후, 8주차 중간고

사 기간에는 지식에 대한 필기시험만 수행하였으며, 중간고사 이후 다시 6주간 두 가지 유형의 수업을 진행한 후, 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지식에 대한 필기시험과 주요 연구변수들의 사후검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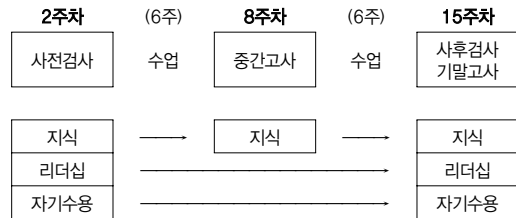


그림 1. 하이브리드 수업 실험설계 모형

3. 리더십 강의 운영 구성과 내용

2학점 2시수로 개설된 《21세기 리더십》 과목을 동일한 교수자가 동일한 강의계획서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하이브리드 수업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교수자가 강의내용의 전 과정을 사전에 모두 녹화하여 사이버 강의실에 탑재하였고, 이를 수업의 유형에 따라 사용하였다.

하이브리드 수업의 운영 형태는 ‘격주형’(type 1)의 경우, 수업 차시를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로 구분하여 한 주는 2시간의 강의를 모두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역시 2시간의 강의 내용을 모두 온라인 강좌로 학습하도록 계획하였다. ‘혼합형’ 수업(type 2)은 한 차시의 수업 시간을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로 분할하여 매주 1시간씩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 전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2번째 시간의 강의는 강의실에서 면대면으로 진행되도록 구성하였다.

《21세기 리더십》 강의의 목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기독교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확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나누도록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결과적으로, 이 강의의 수강 후에 모든 학생들은 본 과목이 추구하는 진정한 리더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 시대가 추

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원리들을 다양한 삶의 관계에서 적절하고도 타당하게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인식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능력을 다각도로 함양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 강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21세기 리더십》 강의내용

주차	강의주제 및 내용
1	강의 안내, 서론(21세기 리더십 이해)
2	21세기 리더십의 출발점
3	21세기 리더십의 특징
4	21세기 리더십의 원리
5	21세기 리더십의 개발과 종류
6	토이박스 리더십, 리더십과 인간관계
7	행복의 리더십, 리더십과 소통
8	중간 정리 및 중간고사
9	감성의 리더십, 리더십과 좋은 습관, 긍정성
10	성격유형(MBTI) 검사와 활용, 리더십과 동기부여, 공동체
11	기질 검사와 활용, 리더십과 비전
12	은사 테스트와 활용, 리더십과 팀워크, 감성리더십
13	서번트 리더십, 리더십과 시간관리, 용기
14	21세기 리더십과 갈등해결
15	종합 정리 및 최종 평가

4. 연구 도구

4.1 리더십생활기술

리더십생활기술은 정희욱(2006)이 타당화한 리더십생활기술 척도를 사용하였다[24].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하위척도는 목표달성능력, 통솔력, 재창조능력, 의사결정능력, 인간관계능력, 목적의식의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개발당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5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이었다.

4.2 무조건적 자기수용

리더십 생활기술과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만족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리더의 자기수용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무조건적 자기

수용을 측정하였다. 자기수용 척도는 서은경과 유성경(2012)이 사용한 자기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다[25].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일부 문항을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8이었다.

4.3 리더십 지식 및 사후 만족도

리더십 지식은 강의 중에 진행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필기시험 성적으로 측정하였다. 출결 및 과제 등의 점수는 합산하지 않았다. 사전검사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은 100점을 최대값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강의에 대한 사후 만족도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조합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하여 온·오프라인 각 강의에 대한 만족도, 추천도 및 전반적 만족도를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변수들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χ^2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고, 효과 검증은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의 유의수준은 .05수준으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격주형과 혼합형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표 3], 전공 계열($\chi^2=.26$, $p=.879$)과 학년($\chi^2=1.84$, $p=.399$), 성별($\chi^2=3.10$, $p=.078$), 종교 유무($\chi^2=.95$, $p=.331$) 및 연령($t=-1.02$, $p=.313$)에 있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은 지지되었다.

표 3. 일반적 특성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변수	격주형(n=33)		혼합형(n=31)	
	n(%)	M±SD	n(%)	M±SD
전공 계열				
인문사회	16(48.5)		15(48.4)	.26 .879
자연공학	10(30.3)		8(25.8)	
예체능	7(21.2)		8(25.8)	
학년				
2학년	4(12.1)		4(12.9)	1.84 .399
3학년	23(69.7)		17(54.8)	
4학년	6(18.2)		10(32.3)	
성별				
남성	8(24.2)		14(45.2)	3.10 .078
여성	25(75.8)		17(54.8)	
종교				
있음	10(27.8)		11(39.3)	.95 .331
없음	26(72.2)		17(60.7)	
연령	24.19±1.38		24.61±1.89	-1.02 .313

2. 주요 연구변수들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격주형과 혼합형 집단의 주요 연구변수들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사전 지식 점수(t=-1.40, p=.165)를 비롯해 무조건적 자기수용(t=-1.40, p=.167), 리더십생활기술(t=-.35, p=.727) 및 하위요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변수들이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어, 주요 연구변수들의 사전 동질성은 지지되었다.

표 4. 주요 연구변수들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변수	격주형		혼합형	
	M(SD)	M(SD)	t	p
리더십 지식(사전)	4.24(5.02)	2.58(4.45)	1.40	.165
리더십생활기술	193.76(29.09)	196.19(26.20)	-.35	.727
목표달성능력	30.36(6.05)	31.97(5.60)	-1.10	.276
통솔력	32.33(6.57)	30.48(7.12)	1.08	.284
재창조능력	40.09(5.25)	39.00(4.95)	.85	.396
의사결정능력	30.39(7.37)	30.09(6.45)	.18	.862
인간관계능력	31.67(4.67)	32.87(3.75)	-1.13	.261
목적의식	28.91(8.50)	31.77(6.50)	-1.51	.137
무조건적 자기수용	35.36(6.49)	37.39(4.97)	-1.40	.167

3. 리더십 하이브리드 수업의 효과 검증

하이브리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식과 무조건적 자기수용, 리더십 생활기술의 증진을 통해 검증하였다. 지식점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점수를 1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위해 Mauchly의 구형성 가정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chi^2=.60, p>.05$), 구형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구형성이 가정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과 시기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F=4.32, p<.05$) 측정 시기에 따른 두 집단 간 지식 점수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 시기별로도 지식 점수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764.99, p<.001$). 이를 보다 명료하게 도식화 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5. 리더십 지식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p
시기	183486.86	2	91743.43	785.82	<.001
집단X시기	1008.271	2	504.14	4.32	.015
오차	14476.82	124	116.75		
집단	506.99	1	506.99	1.66	.203
오차	18992.22	62	306.33		

Mauchly 's W=.99, $\chi^2=.60, p=.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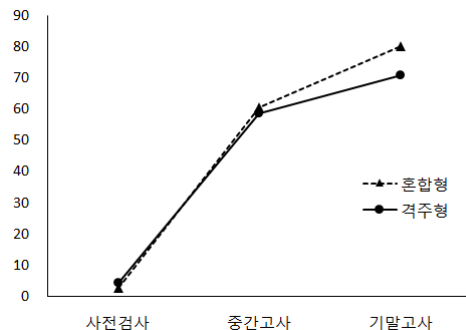


그림 2. 집단별 지식점수의 변화

표 6. 리더십 지식의 측정시기별 평균 및 사후검증 결과와 각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집단	사전검사 ^a	중간고사 ^b	기말고사 ^c	Bonferroni
	M(SD)	M(SD)	M(SD)	
격주형	4.24(5.02)	58.67(17.56)	70.79(16.57)	a(b/c)
혼합형	2.58(4.45)	60.71(13.41)	80.16(16.35)	a(b/c)
t(p)	1.40(.165)	-.52(.605)	-2.28(.026)	

주. 사후검증은 Bonferroni의 방법으로 조정하였으며, 모든 시기별 p<.0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별 지식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전과 중간고사까지는 두 집단이 매우 유사한 증가를 보였으나, 기말고사에서 혼합형 집단의 성적이 격주형 집단의 성적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지식점수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표 6], 중간고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52, p=.605), 기말고사에서는 혼합형이 격주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28, p=.026). 또한 각 시기별 지식점수의 변화가 유의한지 Bonferroni의 교정을 통해 사후검정을 수행한 결과[표 6], 두 집단 모두 각 측정시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1), 사전검사보다 중간고사 점수가, 그리고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시기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별 평균값의 변화와 Bonferroni의 사후검정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첫 번째 가설 ‘격주형과 혼합형 하이브리드 강의는 리더십 지식을 증가시킬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하이브리드 수업의 형태에 따라 리더십생활기술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수행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격주형 집단의 경우 모든 연구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혼합형에서는 리더십생활기술(t=-2.60, p<.01)과 무조건적 자기수용(t=-5.60, p<.001)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혼합형 집단은 리더십생활기술의 하위요인 중 목표달성능력(t=-2.71, p<.05), 통솔력(t=-2.63, p<.05), 의사결정능력(t=-2.61, p<.05), 인간관계능력(t=-2.16, p<.05)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표 7. 리더십생활기술과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변화

변수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M(SD)	M(SD)	
리더십 생활기술	격주형	193.76(29.09)	201.49(27.53)	-1.08
	혼합형	196.19(26.20)	212.37(26.56)	-2.60**
목표달성능력	격주형	30.36(6.05)	33.25(9.27)	-1.44
	혼합형	31.97(5.60)	35.74(5.29)	-2.71*
통솔력	격주형	32.33(6.57)	34.24(6.04)	-1.10
	혼합형	30.48(7.12)	34.35(7.06)	-2.63*
재창조능력	격주형	40.09(5.25)	40.61(4.10)	-0.44
	혼합형	39.00(4.95)	41.32(5.15)	-1.99
의사결정능력	격주형	30.39(7.37)	31.67(6.82)	-0.70
	혼합형	30.09(6.45)	33.48(6.64)	-2.61*
인간관계능력	격주형	31.67(4.67)	31.91(3.96)	-0.24
	혼합형	32.87(3.75)	34.83(4.07)	-2.16*
목적의식	격주형	28.91(8.50)	29.82(7.33)	-0.47
	혼합형	31.77(6.50)	32.65(6.42)	-0.47
무조건적 자기수용	격주형	35.36(6.49)	38.63(6.13)	-1.85
	혼합형	37.39(4.97)	43.71(4.73)	-5.60***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두 번째 연구가설인 ‘격주형과 혼합형 하이브리드 강의는 리더십생활기술을 증가시킬 것이다’는 혼합형에서만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므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세 번째 연구가설인 ‘격주형과 혼합형 하이브리드 강의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증가시킬 것이다’는 혼합형에서만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므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 하이브리드 수업의 사후 만족도

하이브리드 수업에 대한 사후 만족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격주형과 혼합형 간에 사후 수업만족도의 각 문항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 5번 문항의 전체 평점은 4.31점으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모형으로 구성된 이러한 형태의 수업방식이 기존의 면대면 수업방식에 비해 학생들에게 신선한 흥미를 주었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면에서의 높은 만족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혼합형 집단의 경우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조합이 매우 적절하였다’는 문항에 3.6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온라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았으나(M=3.79),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4.2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격주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4.03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8. 하이브리드 수업 사후 만족도

문항	격주형	혼합형	전체
	M(SD)	M(SD)	M(SD)
1.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조합이 매우 적절하였다.	4.06(1.04)	3.68(.98)	3.89(1.03)
2. 온라인 강의는 매우 만족스럽다.	4.03(.94)	3.79(.99)	3.92(.96)
3. 오프라인 강의는 매우 만족스럽다.	4.19(.92)	4.29(.71)	4.23(.83)
4. 내 친구에게 이 수업을 추천하고 싶다.	4.44(.81)	4.21(.79)	4.34(.80)
5. 전반적으로 이 수업은 만족스럽다.	4.33(.83)	4.29(.81)	4.31(.81)

IV. 논의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수업 구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과목으로 2개 반을 개설하여 격주형 모형(type 1)과 혼합형 모형(type 2)으로 하이브리드 수업을 수행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리더십 지식은 두 집단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격주형 강의를 받은 집단보다 혼합형 강의를 받은 집단이 총괄평가인 기말고사 성적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차적으로는 두 집단 모두 학습효과가 유의하게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Blended Learning)의 적용과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에서 오프라인-온라인 혼합방식의 수업은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16]. 그러나 동일한 연구에서 8주간 온라인 수업을 수행한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만 진행한 비교군보

다 성적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가 상충하였다. 총 12주간의 수업 중에서 온라인 8주간의 수업은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온라인 콘텐츠 학습의 분량과 온라인 활동의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면서 4주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의 50% 정도를 온라인 콘텐츠로 배정함으로써 무리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지 않은 것이 적절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성적의 유의한 향상이 있었으나 총괄평가인 기말고사 성적에서 혼합형이 격주형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혼합형 강의를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대학생들의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 교육을 수행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을 위해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모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율을 3:7로 제안하고 있는데[26],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리더십생활기술의 증진은 혼합형에서만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리더십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와 소통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본 과목에서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했던 요소가 소그룹토의와 조별 주제발표였다. 강의실에서의 소그룹을 통해 실제적 활동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고, 구성원들이 교대로 소그룹에서의 촉진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토론을 이끌어내었으며, 토의 중에 발생하는 상충된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을 중재했던 경험들이 리더십생활기술의 증진을 도왔을 것으로 이해된다. 기업에서 리더십 역량의 증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통학학습을 수행한 선행 연구에서도 사후 리더십 역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타인을 통한 면접을 통해 리더십의 역량 증진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여[27],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않았으나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리더십의 역량 증진이라는 면에서 유사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업무 중 리더십 교육과 같은 역량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학업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도 적절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상호작용적 요소를 고려할 때 오프라인 교육과의 통합이 이루어져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경우 혼합형에서만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이것은 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인관계, 소통,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등을 다루는 리더십 과목의 특성상, 면대면으로 만나는 빈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준다. 동일한 교육과정의 수업진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에 한 번씩의 만남보다는 매주 교수와의 만남이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같은 정서적 개발에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잦은 만남이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강의실 공간이라는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정기간의 정기적인 만남과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자기이해와 수용,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학습자와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응집력이 형성되어 수용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고 깊이 있는 관계를 경험하며, 토론이나 주제발표와 같은 소그룹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기술이나 갈등해결 방법을 터득하고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던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28][29].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리더십 교육에 있어서 격주형 방식보다는 혼합형 방식이 전반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외국대학들의 이러닝 수업 운영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도 교수-학습의 활동 측면에서 교수와 학습자 간의 교류보다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교류를 의미하는 상호작용이 활성화될 때에 공동체형성이 가능하므로, 외국 대학들이 이러닝의 주요 전략으로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채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30]. 혼합형 수업은 격주형보다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일으키기에 용이하고 정서적으로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개인의 학습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수업의 형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리더십과 같은 요인들은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 학습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격주형이 혼합형보다 오히려 높았다. 격주형의 만족도가 혼합형에 비해 전반적인 만족도에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본 과목의 수강생 다수인 87.5%가 3-4학년 학생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격주형 하이브리드 모형이 학생들의 시간과 통학의 비용을 절약하게 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혼합형의 경우 온·오프라인의 강의 조합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인간관계와 리더십 기술의 개발을 도왔던 소그룹 활동 등의 오프라인 강의의 실제적 경험에 대한 시간적 아쉬움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양한 인간관계의 특성을 다루고 이해해야 하는 리더십 과목은 면대면 체함을 통한 실습의 비중이 더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더십 과목의 경우,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학습효과도 함께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혼합형 하이브리드 모형을 채택하되, 학생들이 참여와 실습을 통해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리더십 과목에 한정하여 운영하였으므로, 모든 과목의 하이브리드 수업의 운영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 수업이 실제 강좌였으므로 평가의 모든 부분이 성적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어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본 연구가 하이브리드 유형의 격주형과 혼합형을 비교분석하여 리더십 교육에 있어서는 혼합형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다 더 확실한 연구결과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방식의 면대면 강의 유형과 혼합형의 비교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들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방법론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다.

참고 문헌

- [1] 박보경, “포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전도전략의 모색,” 장신논단, 제29집, pp.211-237, 2007.

- [2] http://www.kaudp.or.kr/bbs/bbs_view.asp?pNum=26&page=4&bbsID=conference%5FInfo
- [3] 봉원영, “기독교대학에서의 하이브리드 교육을 통한 기독교 교육 가능성 탐색,”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6호, pp.513-528, 2014.
- [4] W. G. Bowen, *Higher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 [5] 김주연, *원격교육과 면대면 교육 매체의 특성에 따른 효과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6] 이상수, “Blended learning의 의미와 상호작용 설계에 대한 고찰,”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3권, 제2호, pp.225-250, 2007.
- [7] B. Ross and K. Gage, *Global perspectives on blended learning: Insight from WebCT and our customers in higher education*, In C. G. Bonk (Ed.), *The Handbook of Blended Learning*, pp.155-168, Pfeiffer, 2006.
- [8] J. George-Paloinins and V. Filak, “Blended learning in the visual communications classroom: Students reflection on a multimedia course,” *Electronic Journal of e-Learning*, Vol.3, pp.247-256, 2009.
- [9] 우종정, 김보나, 이옥형, “대학에서 면대면 수업 대안으로서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pp.219-225, 2009.
- [10] 박덕재, “온라인 대학영문법 강의에서 상호작용과 정의적 요인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510-519, 2012.
- [11] Y. Cha and H. Kim, “Implementation of instructional methods and learner’s views in online/offline business English classe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14, No.3, pp.11-35, 2011.
- [12] 박성익, 이상은, 송지은, “블렌디드 러닝에서 효과적 온오프라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 강좌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제5권, 제1호, pp.17-45, 2007.
- [13] C. H. Lee, “Computers and four language skills development,” *Language and Linguistics*, Vol.38, pp.59-87, 2006.
- [14] 한국경제연구원,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개방형 온라인대학(MOOCs) 확산의 의미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4.
- [15] 최병수, 유상미, “대학 강의실 수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H형 블렌디드 이러닝 적용 효과 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49-60, 2013.
- [16] 임정훈, “대학 Blended Learning 환경에서 온라인-오프라인 혼합방식 및 성찰활동이 자기조절 학습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3권, 제4호, pp.49-76, 2007.
- [17] 이현주,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대학생 영어학습에서의 상호작용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8권, 제1호, pp.1-24, 2012.
- [18] 김준호, 김태식, “대학에서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관리회계교과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31집, pp.111-127, 2010.
- [19] 성치경, “혼합학습 환경에서 이러닝 학습참여와 이러닝학습시스템 접속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제35집, pp.90-98, 2011.
- [20] 한지영, 이은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환경에서 e-learning에 대한 학습자의 지각정도와 학습만족도 - S 대학 보건교육학 강좌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69-77, 2010.
- [21] 최윤경,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기초중국어’ 수어 모형 개발 및 적용,” 중국어교육과연구, 제13권, 제12호, pp.1-21, 2011.
- [22] D. R. Garrison and H. Kanuka, “Blended learning: Uncovering its transformative potential in higher education,”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Vol.7, pp.95-105, 2004.

- [23] G. Wilson, *Teachers in Blended Learning Environments: Case studies of ICT-enhanced blend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Verlag: VDM, 2008.
- [24] 서은경, 유성경, “수퍼바이저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 슈퍼비전 작업동맹의 관계: 수치심, 자기수용,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 상담수련생과 상담자격증 소지자 집단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1호, pp.1-26, 2012.
- [25] 정희옥, “리더십생활기술 측정도구 개발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2호, pp.29-45, 2006.
- [26] 김정태, 김희진, “오프라인 대학교 영어교육에 최적화된 블렌디드 러닝 교수모형 연구,” 멀티미디어언어교육, 제15권, 제1호, pp.135-155, 2012.
- [27] 이명근, 이현경, “기업교육 방안으로서의 온·오프라인 통합학습에 대한 효과성 분석,” 기업교육연구, 제7권, 제2호, pp.51-67, 2005.
- [28] I. D. Yalom,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Basic Books, 1995.
- [29] 강민석, 임결, “대학 이러닝 콘텐츠 기반 학습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과 학습동기가 학습자-교수자 상호작용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1014-1023, 2013.
- [30] 김세리, 정영숙, 정영란, “외국대학 이러닝 수업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3권, 제2호, pp.161-194, 2007.

저 자 소 개

봉 원 영(Won Young Bong)

종신회원



- 1998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신학 석사)
- 2010년 5월 : 미국 Andrews University 신학과(목회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리더십, 교육 콘텐츠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심리측정·평가, 학교심리, 건강심리